미이라쿠(미미라쿠 섬)

고토 열도의 최서단에 위치한 후쿠에 섬 북서부에 있는 미이라쿠(미미라쿠 섬) 반도는 8 세기에서 9 세기까지 많은 견당사의 최종 경유지였습니다. 미이라쿠에서 동중국해를 서쪽으로 횡단하는 위험한 여정을 떠났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미이라쿠 반도의 무성한 나무와 초목은 거의 옆으로 뻗게 되어 황량하고 혹독한 인상을 줍니다.

이 반도는 기후가 험하고 일본 열도의 서쪽 끝에 위치해 견당사가 고향에 작별을 고하는 곳이라고 하여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10 세기의 『가게로 일기(하루살이 일기)』에 수록된 시에는 이승과 저승의 틈인 '미미라쿠'에서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